



완산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전통문화 나라' 성료

전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건강식 생활체험관 '전통문화 나라'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UNESCO 음식청의 도시이자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시의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전래문화와 연계한 전통음식 만들기 및 영양교육, 전통 놀이와 체험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음식문화와 농산물에 대한 친밀감 형성 및 편식 개선 유도에 목적이 있다.

센터에 따르면 등록급식소 44개소 어린이(629명)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나라' 프로그램을 진행, 어린이들은 떡갈 문양 찍기, 전래놀이 '해님 달님' 아동극 관람, 봉나무 길 건너고 호랑이 입에 떡 넣기, 동아줄 미끄럼틀 체험, 박 터트리기 등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경희 센터장(전주대 교수)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이고 안전한 식생활 소비를 통한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옥산면사무소에 쌀 500kg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부지에서 수확한 쌀 500kg을 군산시 옥산면사무소에 22일 기부했다.

기부한 쌀은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부지(군산시 사정동)에서 자연 밭이한 벼를 환경정리를 통해 수확한 것으로 옥산면사무소를 통해 저소득층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준 전북대병원에 감사의 표시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유희철 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 설립을 지지해준 군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수확한 쌀을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과 나눌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지역 책임병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은 기본설계 완료에 따른 조달청 설계적성검토가 11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을 위한 정부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2023년 말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노송동 송영도씨, 20만원 기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주시 보호를 받으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송영도씨(77세)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조금씩 모은 2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이 맴돌고 있다.

기부자의 기부금은 평소 노인일자리(길거리 쓰레기 줍기)를 통해 일하며 어렵게 번 돈을 조금씩 저축해 모은 돈으로 밝혀져 의미가 담긴 감동이 전해졌다.

송영도씨는 "항상 잘 챙겨주고 염려해 주 감사하다. 금액이 얼마 되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기부소감을 밝혔다.

송해인 노송동장은 "주운 날치속 스스로의 경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귀한 마음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영태 기자

평화2동 주민자치위, 청소년 6명에 장학금 전달

전주시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철수)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지난 20일) 행사를 통해 2022년 '희망등대 장학금 전달'을 진행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국제아이즈엔 전북지구 온고지방 전일클럽의 후원으로 마련해, 평화2동 관내 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은 "어려운 시기 장학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장철수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관내 학생들이 희망등대라는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애 평화2동장은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중한 선물을 실천했다. 앞으로도 좋은 지역민 사랑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계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해 지난 2017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지속적인 후원 할 수 있도록 노력”

전북대 최고위과정, 취약계층 어린이 위해 5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최고위과정(ACE)이 릴레이 기부를 통해 모은 500만원의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고위과정 박석화 총동문회장 등은 지난 21일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북대 개교 75주년 송년음악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편 지난해 취약 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는 등 매년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온 최고위과정은 올해도 원우들의 릴레이 기부를 전하며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았다.

박석화 최고위과정 총동문회장은 "원우들의 정성이 모여 도움을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규모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과정 과정장인 김동원 총장은 "이번 송년 음악회를 통해 이웃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동시에 최고위과정 원우 및 가족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변화와 속도의 시대,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최고위과정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품격을 갖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이영규 농업연수사 '근정포장'



이희주 농업연수사 '대통령 표창'

농진청, 대한민국 공무원상 2점 수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국립식량과학원 고통지농업연구소 이영규 농업연수사가 근정포장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이희주 농업연수사가 대통령 표창을 지난 20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공직 사회에 본보기가 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으며,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이다.

국립식량과학원 이영규 연구사는 식물바이러스 치료제 및 항체 생산 원천기술 개발로 바이러스 진단키트 생산 비용을 30% 절감하고, 최초로 감자갈색병 박멸에 성공하여 2,900억 원에 달하는 피해 예방과 경제효과를 창출한 공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희주 연구사는 기후 변화에 따른 채소의 생장, 생리 반응, 수량을 분석해 채소 수급 조절 정책을 지원하고, 더위와 가뭄에도 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고온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28억 원으로 분석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총 234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공개 검증과 현장실사, 국민검증단 평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5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업기술과 품종 개발에 힘써 농산업 발전을 앞당기고, 시대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군 장현우 부귀면장 '국무총리표창' 수상

진안군 부귀면 장현우 면장이 지난 20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장 면장은 전북 황토환경역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2년 농촌발전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농촌융복합 발전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았다.

장현우 면장은 2021년에 진안군 농촌신유통과장 보직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담당 부서장으로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창출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현우 면장은 "이번 수상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해 노력한 많은 직원들을 대표해서 받은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귀면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뛰며 농가들과 소통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양현고, 재능 축제... 내년 3월 30일까지 작품 전시

양현고등학교교장 이종혁(여)은 지난 21일 재능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 하나가 된 축제, 알차다! 즐겨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축제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으로 꾸민 총 35개 부스를 마련해 공연 및 전시 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참치등이리 아레ندا 주관하는 전시에 생활미술 프로젝트 프로그램 활동, 기부받은 헌옷, 페플라카드, 비닐류 등의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친환경 패션디자인(의상)' 작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정란 지도교사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여러 소재들로 다양한 표현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도 신장시키고, 작품을 완성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돼 생활 속 미술 분야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술작품을 전시한 김윤혜 학생은 "아레ندا 동아리의 연구 목적에 맞게 페플라카드로 업사이클링 POP 주제의 의상을 만들면서 2년간 쌓은 소양과 실력으로 만족스런 작품을 만들어 뿌듯하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현고 관계자는 "업사이클링 전시회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운영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생활 속 예술 분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교양교육원, 교양교육 세미나 개최

호원대학교 교양교육원은 22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2022학년도 교양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교·강사 교수역량 강화 및 교양 교과목에 대한 중요성 확산을 위해 교양 교과목 담당 교·강사, 교양교육운영위원, 교양교육개발소위원회 등 대학의 교양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는 교양 교과목 담당 교·강사 중 강의평가가 우수한 교원을 선정해 수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성과 및 자신만의 독자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하는 특강을 이어갔다.

최종 선정된 군사과학기술학과 김용환 교수(경제학의 이해)와 항공관광학과 허운선 교수(국제매너와 에티켓)는 담당 교과목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동료 교원들에게 수업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진희 원장은 "교양교육 세미나를 위해 발표해 준 교수님들과 참가해 준 교양교육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완산적십자 효자2동봉사회에 내년 적십자회비 전달

전주완산적십자 효자2동봉사회(회장 최봉만)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2023년도 적십자 회비를 22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10월 국무총리대중공관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적십자봉사회 시상식에서 완산 효자2동봉사회가 수상하며 받은 상금을 다시 기부하며 더 큰 귀감이 됐다.

최봉만 회장은 "효자2동봉사회도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나눔실선에 앞장서겠다. 모든 분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적십자사의 2023년 전북적십자 전체 모금목표액은 약 29억8200만원(적십자회비·정기후원·기부금품)이며, 모금 목표액은 12억6000만원이다. 올해 모금된 금액은 도내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재해 구호활동, 인건교육 보급 사업 등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함열신협, 신협 사회공헌재단에 500만원 전달

함열신협(이사장 박종석)은 신협 사회공헌재단에 500만원 기부금 전달식을 22일 진행했다.

이날 기부금은 전국신협 및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신협 사회공헌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말을 맞아 전북 신협들의 따뜻한 기부금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코로나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함열신협 박종석 이사장은 "함열신협에서 전달한 기부금이 대상을 극복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3년에는 자선사업의 목표와 함께 조합원들과 상생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열신협은 지난 11월 30일 기준 자산 약 1,200억 원 조합원 수 약 5,000여 명으로 익산을 넘어 전북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